

증상 없이 발생하고 오래 방치하면 수술도 못해



건강 바로 알기 갑상선암

조선대병원 내분비외과

김유석 교수

우리나라 국가 암등록 사업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갑상선암은 전체 인구에서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여성의 경우 유방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갑상선암의 종류에는 크게 분화도가 좋은 암과 분화도가 나쁜 암으로 나눌 수 있다. 분화도가 좋은 암에는 갑상선 유두암과 여포암이 있으며, 분화도가 나쁜 암에는 수질암과 역형성암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가장 많은 번도로 발생하는 것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갑상선 유두암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불청객=갑상선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갑상선암의 크기가 커지면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목 부위에

덩어리가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며 심한 경우 기도를 압박하거나 주변의 식도를 압박하게 되어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성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되돌이후두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쉰목소리를 유발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검사를 하고 진단이 된 경우 증상이 없이 발견된 경우에 비해 초기가 아닌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서 많이 발생

유방암 이어 두번째 많은 암

초기 발견땐 완치율 매우 높아

예후 좋은 갑상선유두암 방치땐

치사율 높은 역형성암으로 변화

가 많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 측면에서 갑상선 초음파도 시행 받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는 갑상선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아 진단된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경우 초기인 경우가 많으며 완치율 또한 매우 높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갑상선유두암의 경우 초기에 발견이 될수록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예후 좋은 갑상선유두암도 오래 방치하면 치명적=갑상선은 목 정중앙에 나비모양으로 위치해 있으며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한동어리도 되어있지만 편의상 기도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 양으로 나누고 양쪽을 연결하는 부분을 협부라고 부른다. 이는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조선대병원 김유석 내분비외과 교수가 갑상선유두암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분화도가 좋은 암(갑상선 유두암, 갑상선 여포암)은 크기가 작고 한쪽 옆에만 분포하면서 갑상선 안에만 자리하고 주변의 림프절 전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인 갑상선 염을 남겨두고 한쪽만 제거하는 수술로 충분히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남아 있는 정상 갑상선이 기능을 유지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불편감을 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예후가 좋은 갑상선유두암을 오랜시간 방치했을 때 갑상선 역형성암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갑상선 역형성암은 모든 암 종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 중의 하나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암으로 알

려져 있다. 실제로 현재에도 부득이한 상황으로 치료가 미뤄져 수술의 시기를 놓쳐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간혹 볼 수 있다.

갑상선암은 증상 없이 발생하여 자칫 위험할 수 있지만 건강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양덕환 혈액내과 교수

'난치성 T세포 림프종 치료법' 세계 첫 제시

표준 항암요법이 없는 난치성 혈액암인 '재발성·무반응성 말초 T세포 림프종'의 치료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순전남대병원 양덕환 혈액내과 교수가 주도하는 연구팀이 최근 표적항암제인 코판라이십과 세포독성 항암제인 젠사이타빈을 병용하면 치료효과가



양덕환 교수는 혈액암 분야 중 악성 림프종과 골증식성 종양치료 등을 맡고 있으며 연구분야에서는 T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요법, 인공지능을 이용한 혈액암 환자의 치료반응과 예후 예측 프로그램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한혈액학회 연구지원이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져자 정명호)이다.

특히 이번 논문은 정명호 교수팀의 한국인 급성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와 일본 국립 심혈관센터의 사토시 야수다(Satoshi Yasuda) 교수 연구팀의 일본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JAMIR)의 첫 협업을 통한 양국간의 활발한 학술교류의 결과물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

한편 이번 논문은 유럽심장학회와 대한심장학회 등의 학회지에도 인용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3기 연속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광주금연지원센터 각종 서비스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종훈) 광주금연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1기 2015~2017년, 2기 2018~2020) 사업을 마치고,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 최근 제3기 지역 금연 민간보조사업에 재선정됐다.

광주금연지원센터는 '금연캠프 및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환경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여 광주광역시 흡연자들의 흡연율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

앞으로 시행될 제3기 지역금연사업(2021~2023년)은 기존사업(4박 5일 금연캠프, 입원환자, 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대상 금연사업)과 신규 사업인 저소득층

흡연대상자 및 지역사회 금연사업지원관리 등 의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박종 광주금연지원센터장은 "광주금연지원센터는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제3기 사업을 수행해 흡연자의 금연율 유도하고, 금연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담배 없는 건강한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이승현·정명호 교수팀 논문

한국혈전지혈학회 화이자 학술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승현·정명호 교수팀의 연구논문이 최근 한국혈전지혈학회의 화이자 학술상을 수상했다.

화이자 학술상은 한국혈전지혈학회가 매년 국내 연구진에 의해 국제학회지에 보고된 혈전지혈 분야 논문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고 점수를 획득한 논문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 논문의 제목은 '심장혈관 중재술을 시술받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P2Y12 억제제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제1저자 이승현, 교신

저자 정명호)이다.

특히 이번 논문은 정명호 교수팀의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와 일본 국립 심혈관센터의 사토시 야수다(Satoshi Yasuda) 교수 연구팀의 일본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JAMIR)의 첫 협업을 통한 양국간의 활발한 학술교류의 결과물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크다.

한편 이번 논문은 유럽심장학회와 대한심장학회 등의 학회지에도 인용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엄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